두 가지 악

- 제목: 두 가지 악 (The Two Evils)
- 핵심 성경 본문: 예레미야 2:1–13
- 교회 / 강단 메시지 요약: 임마누엘교회 남가주 (Immanuel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, ICSC)

1. 서론**:** 우리의 참된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

- 충격적인 하나님의 책망: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택하시고 인도하신 언약의 백성에게 단순한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, 두 가지 근본적인 영적 악을 말씀하신다(예레미야 2:13).

- 두 가지 핵심적인 악:

1.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.
2.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.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의 기준,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.

- 자기 의존의 함정: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며 자신의 삶과 재정을 끊임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하려고 하면, 결국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된다.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수고가 계속 새어 나가고, 만족과 결실 대신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.

2. 근본 원인**:**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됨

-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음: 성장한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 방황하며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처럼,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.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.

- 인간적인 이유와 핑계: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와 과거의 상처,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내세우곤 한다.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이유와 핑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.

-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춤: 참된 치유는 우리의 소원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적인 계획에 일치하도록 변화될 때 시작된다. 자기중심적인 정당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.

3. 회복의 길**:**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라

- 강단 말씀에 귀 기울임: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. 다음과 같은 진실한 기도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구해야 한다.

“주님,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”

- 지속적인 집중과 인내: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해야 한다.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은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고,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세워 간다.

-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음: 참된 기도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(예레미야 29:13).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, 우리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망대를 세우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한다.

4. 결론**:**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

-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: 성도들이 더 이상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도록 맡길 때,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하루 24시간 기도 속에 뿌리내리는 삶을 살게 된다.

- 흑암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: 하나님의 주권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갈 때 흑암 세력의 역사는 완전히 결박된다. 시련은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며, 성도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된다.